

김혜란 연구원

## 요약

Swiss Re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성장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1~2년 내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증가가 클레임 인플레이션 상승의 악영향을 상쇄하면서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단기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탈(脫) 탄소 정책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최근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물가(클레임 인플레이션)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은 손해보험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했으며, 이는 1982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임
    - 식품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8%, 에너지 지수는 32.0% 상승했으며, 이는 각각 1981년 5월 이후, 198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임
  - Willis Towers Watson 의하면 주요 보험의 클레임 인플레이션은 같은 기간 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sup>1)</sup>, 이는 클레임 인플레이션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과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정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임<sup>2)</sup>
  - 건물과 차량의 수리 비용 상승으로 자동차 및 재물보험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sup>3)</sup>,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금 지급 간 시차가 큰 장기 보험상품에서 준비금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음<sup>4)</sup>
  -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둔화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상품 자체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 Swiss Re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성장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Swiss Re는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ROE가 2021년 6.4%(순이익은 634억 달러), 2022년 6.2%로 예상하였으나

1) Willis Towers Watson(2021. 9. 28), "Composite insurance inflation continues to outpace general inflation"

2) 보험연구원(2022. 1),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CEO Brief

3) Business Insurance(2022. 4. 28), "Rising rates not enough to offset claims inflation: Swiss Re"

4) Insurance Journal(2022. 4. 21), "Claims Inflation, Weakening Price Momentum Could Hit Reinsurer, London Mkt Profits"

인플레이션 확대에 의해 2022년 ROE의 추정치를 4.5%로 하향 조정함<sup>5)</sup>

- 2021년 보험영업 손실은 높은 투자이익과 낮은 계약자배당 등으로 상쇄되었으나,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보험금 청구 비용 상승이 보험영업 손실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영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음

- 한편 미국 손해보험산업 성장성은 개인자동차 보험 등에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Swiss Re는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2022년 원수보험료 성장률의 추정치를 7.6%에서 8%로 상향 조정함

○ 그러나 Swiss Re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이 최대 1년~1년 6개월 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증가가 클레임 인플레이션 상승의 악영향을 상쇄하면서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단기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함<sup>6)</sup>

- 2022년 지난 3월 Fed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 0~0.25%인 기준금리를 연 0.25~0.5%로 0.25%p 인상하였으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여 올 연말 기준금리는 연 1.9%(중위값), 2023년 말 금리는 연 2.75%로 예상됨<sup>7)</sup>
- Swiss Re는 2023년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ROE가 6.0%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6.3%로 장기적인 추세에 맞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탈(脫) 탄소 정책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sup>8)</sup>

- 현재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 화석연료 공급 제한, 녹색 에너지 생성을 위한 광물 자원의 수급 불균형 등이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있음<sup>9)</sup>
  -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녹색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2021년 9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전력 요금의 인상, 원유 가격 등이 상승하였음
  -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6배 많은 미네랄을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녹색 기술은 전환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금속과 광물을 필요로 하지만 새로운 광산 개발에는 최소 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을 유발하며, 최근에 수급불균형으로 주요 금속과 광물의 가격이 상승하였음
  - 앞으로 많은 산업이 저공해 기술로 전환함에 따라 그린플레이션이 전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제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자연재해와 악천후가 증가 등 기후 변화 그 자체로 인하여 경제활동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플레이션도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5) Swiss Re(2022. 4), "US Property & Casualty outlook: Ukraine conflict adds to inflation pressures and specialty lines risks"

6) Swiss Re(2022. 4)

7) 중앙일보(2022. 3. 18), "미국, 금리 0.25%p 인상... 여섯 번 더 올려 연말 1.9% 예상"

8) Swiss Re(2022. 4. 21), "The green transition: inflation that we cannot afford not to bear"

9) ECB(2022. 3. 17), "A new age of energy inflation: climateflation, fossilflation and greenflation"